

민주당, 내년 지방선거 공천 ‘권리당원 힘’ 커진다

정청래 “대의원과 동등 ‘1인 1표제’ 도입”
4인 이상 경선 시 권리당원 100% 컷오프
기초·광역 비례 순번도 권리당원 투표로
당헌·당규 개정안 19~20일 전당원 투표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 공천에 당원의 뜻을 더 크게 반영하는 당헌·당규 개정에 돌입한다.

그간 당 대표·최고위원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했던 규정을 고쳐 대의원과 권리당원에게 모두 투표권을 동일하게 부여할 방침이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체 당원 투표를 오는 19일과 20일 이틀 동안 진행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지난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민주권시대에 걸맞은 당원 주권시대, ‘1인 1표’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며 “그 약속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 대표는 지난 7월 전당대회 당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투표 반영 비율을 동등하게 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전당원 투표에 부쳐지는 안건은 ‘△1인 1표에 찬성하는가 △1차 예비 경선의 권리당원 100% 투표를 찬성하는가 △광역·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 선정에 100%

권리당원 투표를 찬성하는가’이다.

정 대표는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 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 1표를 행사해야 한다”며 “국회의원도 1표, 대의원도 1표, 당원도 1표여야 한다. 이것이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내년에 실시하는 6·3 지방선거에서 열린 공천 시스템으로 공천 혁명을 이루하겠다”며 “몇몇 힘 있는 인사가 공천권을 좌지우지하던 폐습을 끊어내고 당원이 전면적으로 참여해 당의 후보를 공천하는 당원 주권 시대, 권리당원 열린 공천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이날 공개한 지방선거 공천 룰에 따르면 예비 후보자 검증위원회를 통과한 후보는 누구라도 컷오프 없이 경선을 치를 수 있게 한다.

검증위를 통과한 예비 후보가 4인 이상 일 때는 권리당원 100% 참여로 1차 조별 예비 경선을 치르게 된다.

2차 본선에서는 권리당원 50%와 일반



낙안읍성 초가지붕 이엉 잇기 17일 전남 순천시 낙안읍성 민속마을 주민들이 겨울을 맞아 초가지붕 지붕을 새 볏짚으로 바꾸고 있다. 낙안읍성마을 전통민속초가지붕 이엉 잇기 작업은 300여 동의 초가지붕을 대상으로 12월까지 진행하며, 전통기술 보유 주민과 장인들이 베풀 수확 시기에 맞춰 매년 시행하고 있다.

국민 50% ‘선호 투표제’를 통해 50% 이상 득표자를 후보로 결정하는 결선 투표제를 도입한다.

기초·광역 비례대표 선출 방식도 기존에 각급 상무위원이 비례대표 순위를 선정하던 것과 달리 권리당원 100% 투표로 순위를 선정한다.

이런 룰은 기존 당규와는 다른 안으로 전당원 투표 결과에 따라 도입 여부가 결정된다.

정 대표는 “민주당은 명실공히 당원이 주인인 정당. 권리당원의 권리가 최대로 보장되는 당원주권정당의 시대로 진입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광역·기초·비례대표 후보자도 100% 권리당원 투표제를 도입하겠다”며 “이제 민주당의 진정한 주인은 국회의원 이 아니라 당원”이라고 강조했다.

▶2면에 계속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민주당 독점 타파”...조국 ‘정치 메기론’ 선언



전라남도의회
조국혁신당 대표 선거에 단독 출마한 조국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전남도의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전남도의회서 전당대회 첫 일정...23일 전대서 지도부 선출

조국혁신당 대표 선거에 단독 출마한 조국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호남을 찾아 “전남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정치적 메기가 되겠다”고 밝혔다.

조 전 위원장은 이날 전남도의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첫 지역 순회 일정의 기초를 설명하며 “민주당 중심의 안방 정치를 도민 중심 민생정치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전 위원장은 ‘새로운 참여자가 기존

질서를 자극해 전체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이른바 ‘메기 효과’를 지방선거 전략에 비유했다. 그는 “지방정부 곳곳에 숨어 있는 내란 세력을 뿌리 뽑겠다”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광역단체장은 0명,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은 절반 수준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지방선거 전략에 대해선 “광주·전남의 경우 국민의힘 후보 당선 가능성이 0이라고 본다”며 “국민의힘 후보를 0으로 만든

다는 전략적 목표로 광주·전남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겠다”고 언급했다.

양당 체제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조 전 위원장은 현 정치 구조를 “그들만의 리그이자 양당의 적대적 공존”이라고 규정하며 “이 방식은 김대중 정권과도 거리가 멀다. 이제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혁신당은 이번 호남 일정을 시작으로 19일 서울 여의도 크롭스튜디오에서 진행되는 ‘혁신검증 대담회 2회차’, 21일 부산시의회 기자간담회 및 영남권 유튜브 대담회 등 전국 순회 일정을 이어갈 예정이다.

혁신당은 오는 23일 청주 오소크에서 전당원대회를 열고 새 지도부를 선출할 예정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더현대 광주’ 20일 착공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도심 변화 신호탄

광주시는 오는 20일 북구 일동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에서 복합쇼핑몰 ‘더현대 광주’ 착공식이 열린다고 17일 밝혔다.

‘더현대 광주’ 착공은 수십 년간 방치돼 있던 도심 부지가 재탄생하는 광주도시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착공식은 현대백화점그룹이 주관하며, 더현대 광주의 디자인 콘셉트와 비전을 소개하고 기념 퍼포먼스 등도 선보인다.

특히 착공식은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공개행사로 열린다. 광주시는 현대백화점과 협력해 행사 당일 교통 안내와 안전관리 인력을 배치,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장 관리를 강화한다.

‘더현대 광주’는 연면적 27만2955㎡, 지하 6층~지상 8층 규모의 복합문화공간이다. 세계적 건축가 ‘헤르조



더현대 광주 조감도

그 앤드 뫼뮈르(Herzog & de Meuron)’의 설계로 대·내부 공간의 완성도를 높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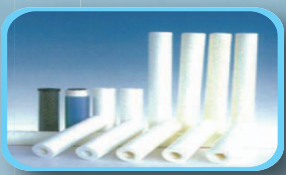
서울 여의도 ‘더현대 서울’보다 약 1.4배 큰 규모로, 2027년 말 완공해 2028년 정식 개점을 목표로 한다.

‘더현대 광주’는 광주 도시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프로젝트로, 수십 년 동안 방치돼 있던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가 재탄생함으로써 도심 전역에 활력과 변화의 흐름이 확산될 것으로 광주시는 기대하고 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각종 필터&수처리 설비에 관한 모든 문제 (주)호원테크가 책임지겠습니다

(주)호원테크



용수처리종합계통도 (Water Treatment Flow Chart)
정밀 여과장치 (Micro-Filter Housing)
백필터 시스템 (Bag-Filter System)
자외선 살균장치 (UV Sterilizer)
R/O장치 (Reverse Osmosis System)
방청 방식 장치 (Dispenser)
급속 침전 장치 (Clarifier)
압력식 여과장치 (Pressure Filter)
중력식 여과장치 (Siphon Filter)
활성탄 여과장치 (Activated Carbon Filter)
경수 연화 장치 (Water Softener)
혼상식 순수 제조장치 (Mixed Bed Deionizer)
복상식 순수 제조장치 (Two Bed Deionizer)
수중의 불순물과 처리방법
이온 교환수지 (Ion Exchange Resin)
활성탄소 (Activated Carbon)
대기중 입자 크기별 FILTER 선정
임도비교표
마이크로 필터 (Micro Filter)
Air Filter Media
Air Filter
Medium Filter
Hepa Filter
Filter Bag
Pocket Bag Filter
Air Filter의 시험방법

■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산단2번로 178

■ ☎ 062)940-8221 · FAX 0629-945-8415 / HP 010-3646-8311